

# 주민건강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 무주군, 전국 최초 건강관련 조례 제정·공포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제정·공포(2019. 7.1.)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비롯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용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

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력·시설·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은 지난 5일 중국 강소성 금호현에서 장영수 군수와 중국 강소성 금호현 서아평 현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장수군·금호현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 장수군,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

### 중국 강소성 금호현과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장수군은 지난 5일 중국 강소성 금호현에서 장영수 군수와 중국 강소성 금호현 서아평 현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장수군·금호현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우호협력의향서 체결로 양 도시는 상호 간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중국 강소성 금호현은 1969년 편성된 현으로, 현재 행정상 가소성 화이

안시에 속해있으며 지역 인구는 45만 명으로 전체 면적은 1394km에 달하며 수자원이 풍부해 '중국민물 음식의 고장'이라 불린다.

또한 금호현은 화이하 생태 경제 연결 중심지대에 위치해 화이안시에서 그린 발전지구로 선정 됐으며 난징 도시권 선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 발전이 전망되는 도시다.

장영수 군수는 "두 지역이 상호 이익증대를 위해 다양한 교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교류해 상생 발전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무주여행, 쾌적하고 기분 좋게

### 주요 관광지 기초질서 확립, 불법 상거래 행위 단속

무주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살천면 구전동 계곡과 안성면 칠연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불법시설 및 광고물, 노점상 단속을 통해 쾌적한 피서지 분위기를 만들고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등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 관광지 청소와 쓰레기 수거,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생, 상하수도, 도로, 교통상황 등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해당 면을 비롯한 문화관광, 환경위생, 재무, 산업경제, 안전재난, 자치행정과 등 11개

분야 9개 부서로 전담반을 구성해 지도와 단속, 조치 등을 진행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권금성 행정팀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시원한 계곡과 숲이 우거져 시원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졌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휴가환경을 만들고 바가지요금이나 교통 혼잡 등 불편 없는 일정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부서별 맡은 업무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락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 상인, 관광객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 수정별이 만든 건강한 토마토 생산

### 군에서 자체생산 보급... 경영비 50%이상 절감 효과

장수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정별 인공증식센터를 운영하고 자체생산 한 장수 수정별을 보급해 농가 소득을 돕는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수정별 인공증식센터는 2018년부터 지역 내 안정적인 화분매개곤충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올해부터 자체생산 장수 수정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장수 수정별 보급 사업은 토마토 작물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한 수정별 1봉군을 2만5000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화분매개곤충 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비를 50%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장수 토마토는 군의 대표 전락 품목 중 하나로 재배면적이 80ha, 재배농가는 214호이며 매년 재배면

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토마토는 꿀벌로 수정하기 어려운 작물로 꽃가루 수정 능력이 탁월하며 환경에도 강한 장수 수정별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장수 수정별(뒤영벌)에 의해 수정된 토마토는 착과율이 12%정도 높으며, 통과가 적고 정형과 생산성이 높아 생산과율이 40%정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당도와 신도가 증가하는 등 품질향상에 도움을 준다.

김성수 소장은 "우리군에서 자체 생산된 합센! 장수 수정별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적 수분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 로컬푸드 토요장터 첫 개장

### 매주 고랭지 신선 농특산물로 전주 소비자 찾아

진안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와 흥수 출하되는 제철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6일 로컬푸드 직매장 토요장터를 첫 개장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토요장터는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대표 손종엽)이 주관한다.

매주 토요일 전주시 호성동 직매장

광장(전주 자동차등록사업소 인근)에서 오전 10시부터 일몰시까지 정기적으로 열린다.

군은 토요장터에서 토마토, 자두, 블루베리 등을 시작으로 수박(7.27~), 건고추(8.17~), 절임배추(11.2~) 등 고랭지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

다. 또 화학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읍면별 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첫 직거래 장터를 찾은 한 소비자는 "고랭지의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자가 직접 나와 판매하여 믿을 수 있고 시중 가격보다 저렴했다. 또 각종 시식·시음행사로 소비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좋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케이지건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